

있는 것은 亦是 讀書이다.

出退勤時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銀行員을 볼때 讀書는——娛樂에서든 研究에서든——아직 銀行員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호뜻한 體溫이 느껴지며 그러는 限銀行員의 生活에는 潤氣가 가지지 않았다는

산 證據가 될것이다.

<에밀·파게>의 말대로 책들이야말로 우리들의——職業이 무엇이든 間에——마즈맛 벗이며 까닭에 우리는 孤獨하지 않은 것이다.

(筆者 韓國產業銀行圖書室勤務)

旅行과 讀書

郭 潤 爽

旅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말안 들어도 一種의 鄉愁와도 같이 야릇한 느낌을 갖게한다. 아마도 이 “旅行”이란 語彙 속에 鄉愁의인 感情을 巢우치게 하는 어떤 要素라도 內包되어 있음일까? 아무튼 즐거운것만 같다. 別로 旅行을 하지않는(못하는) 立場에서 보는 하나의 憧憬은 아닐까 다 旅行을 한다는것은 언제과 관에 박은 듯한 日常生活 特히나 “싸라리멘”으로서 그 生活에서 오는 모든 拘束에 一時的 이나마 벗어나 새로운 氣分과 感情으로 完全히 새로운 環境속으로 파고들어 新鮮한 興奮과 神秘로운 刺戟을 느끼며 自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것은 “레크레이손”치곤 얼마나 高尚하며 즐거운 것이라! 가령 都市에서 시골로 旅行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거기서 山의 아름다움과 맑은 시냇물소리나 달과 별의 아름다움을 볼것이다. 이것은 都市에서도 日常生活에서 바라보던 그것들과 別로 差異될것은 없것만 平常時엔 아무런 感興도 느끼지 못한것이 旅行에서 보는것들은 平凡한것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며 기뻐하게 되는것은 분명히 生活의 시달림에서 벗어나서 모든것을 虛心摺換한 눈으로 바

라보게 되는 까닭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自己가 보고 듣는것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깨닫는 能力을 지니고 있으며도 不拘하고 제때로 느껴보지 못하는것은 各自가 그날 그날에 當面하는 事件들을 處理하기에 만도 바쁜 까닭일까? 우리의 生活環境에는 너무나 外的인 障害가 많이 作用하는 탓이리라 이러한 環境에서 뛰어나와 가지 가지 未知의 世界를 헤치고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思想을 吸收하며 아직 살아보지 못한 人生의 心的 經驗을 맛보며 人生意慾을 도꾸어 새로운 “삶”에 積極的인 行動을 促求하는 것이 그 얼마나 重大한 問題이라! 意義있는 人生을 어떻게 展開하느냐? 生活에서 오는 悲喜와 不滿과 苦悶에서 逃避하여 安全地球로 이끄러 주는것은 旅行도 그렇거니와 案內役은 아무래도 書籍이 큰 役割을 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讀書란 旅行에 못지않게 즐거운 것이며 우리 生活속의 한 行事이고 全혀 別個의 世界인 것이다. 손끝으로 제쳐 넘기는 “페이지”속에 展開되는 讀書의 世界는 순식간에 煩雜한 일을 잊혀주며 따라서 心

勞도 아랑곳 없고 別莊의 閑靜도 優雅한 趣味도 讀書에는 따르지 못하리라 언젠가 이태어나 우리가 하고 싶을때 自由로 할수 있으며 同時에 모든 逆境속에서 解放되는 것이다.

그리고 汗券의 책을 읽어 지냈을 때의 즐거움이란 안다는 즐거움이요 느끼는 즐거움이며 또한 생각하는 즐거움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큰 收穫이며 成就인 것이다. 여기에서 書籍이 우리에게 주는바 體驗으로서의 즐거움이 있는것이다. 知識이나 感動이나 思索은 讀書에 依해서 얻어지는 體驗인 것이다. 또한 산 現實의 生活을 無限한 즐거움에 찬것이라 느끼고 그것을 다시 높은 理想으로 指向 시키기 위해서 좀더 나아가서 生覺해 본다면 讀書은 즐거움에서 크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行動을 위한 指針이고 創造의 前提라고도 한다. 훌륭한 政治家나 科學者나 經濟學者를 어떠한 職位를 莫論하고 다만 專門의 일 書籍뿐만 아니라 多角度的 讀書로서 많은 知識을 깨우치며 지니게되는 것이다.

우리가 肉體를 鍛鍊하여 體力를 向上시키는것과 같이 精神을 鍛鍊하여 智力을

養成함에 努力을 기울리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우리가 生覺함에 旅行을 하는데 있어서 汽車나 버스 船舶等에 올라앉아 目的地에 到達 할때까지 그저 無意味하게 지루한 時間을 浪費할 必要는 없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家庭生活 環境에 되돌아 간다면 모처럼의 즐거운 旅行을 포함도 決코 明朝치는 못할것이다. 이러한 點을 堪案하여 交通部에서는 于先 “무궁화”호 “통일”호 “태극”호의 列車內에 主로 詩書·新刊雜誌·旅行記·隨筆·小說 등의 “列車文庫”를 마련하여 旅行者를 위해 많은 興味를 주고 있으며 各 “觀光호텔”에는 “호텔文庫”가 備置되어 있어 休息時間이나 就寢前 언젠가 누구든지 손쉽게 讀書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當部 圖書館에서는 漸次的으로 施設과 規模를 大幅 擴張하여 “列車文庫”에 있어서는 支線에 이르기까지 各 列車마다 備置할것이며 各 “觀光호텔”에는 “圖書室”을 마련하여 多部門의 良書를 두게하여 더욱 明朝하고 愉快한 旅行을 하는데 이바지하려 企圖하는바 자못 明特가 큰것이다.

(筆者 交通圖書館 勤務)

讀書週間標語當選發表

문교부에서는 10月 20일부터 실시될 今年度 독서주간 표어를 널리 일반 국민에게 현상모집 하였던바 마감일인 지난 9月 25일까지 총수 3,973통이 응모하였는데 심사한 결과 다음 3점이 선정되어 今年度 讀書週間 표어로 使用케 되었다.

한편 상금으로는 당선작에 3萬圓 가자에 各各 1萬圓씩이며 당선자및 표어는 아래와 같다.

내보자]

▲권재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59

◇가작=①『책속의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

▲홍재현 대전 삼성국민학교

②『한사람씩 권한 책이 만민을 깨우친다』

▲김순태 서울 특별시 성동구 금호 남